

하늘로 뻗은 한성인의 목소리

1천300여명 학생총회 참여, 올해 등록금 인상분 환급



▲지난 9월 22일 우리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학생총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우리학교 대운동장에서 등록금 문제와 적립금 사용처 문제를 논하기 위한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개최되었다. 오후 4시경에 학생총회 정족수 670명을 넘겼고 총 1천3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생총회에 참여하면서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에 의해 개최가 선언되었다.

개회와 동시에 학생회 대표들의 기조 발언이 이어졌다. 기조 발언에서 유형빈(의예 3)에술대 학생회장은 "그동안 등록금 문제와 적립금 사용처 공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회 뿐 아니라, 이에 무관심했던 학생들과 교수님들,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직원 모두 이번 학생총회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오늘의 총회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학생활동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며 학생총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기조 발언과 한국어문학부 문선단의 공연이 끝난 뒤, 안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강범석(경제 3)사과대 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분 환급과 등록금 5%인하 ▲적립금 사용 내역 및 사용 계획 공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칙 변경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안건 설명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결은 찬성과 반대를 공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투표는 종이를 앞뒤로 펼쳐 그 수에 따라 찬반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투표가 이뤄진 안건은 등록금 인상분의 환급 방식에 대한 문제였다. 학교 측에서는 모두 환급하지 않고, 반은 수혜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학생회 측에서는 모두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안건은 전체 학생총회 참가자 1천311명 중 1천309명이 학생회 의견에 찬성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세 가지 안건 중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학생총회에 참여한 최 모(역사문화 3)학생은 "현재 대학 교들의 등록금이 너무 비싼 것 같다.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 이미 경회대 학생총회와 같은 사례들이 있으니, 우리 힘으로 이것을 막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환급 방식 외에 적립금 사용 내역에 대한 안건과 등심위 회칙 변경 안건은 따로 학생 투표를 하지

않고 학교 측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학생들은 이 두 안건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했다. 학생총회에 참여한 한 모(컴공 1)학생은 "적립금 역시 우리 등록금으로 모아진 것이다. 적어도 돈을 낸 사람으로서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적립금 사용 내역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또 이 모(한국어문 2)학생은 "등심위 회칙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측과 학생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등심위 회칙 변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투표가 이뤄진 것은 학생 대표 4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이었다. 학생회에서는 김태성 총학생회장, 박정민 예술대 학생회장, 이혜선(멀티 3)야간 총학생회장을 학생 대표로 제안했다. 학생 1천311명 중 1천310명이 찬성하여 학생회가 제안한 4명이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후 학생대표가 학교와 협상을 하러 무대를 내려간 사이, 운동장에서는 퍼포먼스와 공연이 이어졌다. 학

생회에서는 퍼포먼스 외에도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계속 운동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무대에 직접 올라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든 코너가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온 조건상(의예 4)학생은 "나는 등록금을 가장 많이 내는 예대 학생이다. 학교에서 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몰라 답답하다. 낸 사람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로 올라온 이정원(한국어문 3)학생은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 수업 외에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가끔씩 등록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대 행사가 끝나고 오후 6시경, 학교와의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다. 먼저 등록금 인상분 전액 환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등록금 인하는 등심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협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학교 측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적립금 사용처 공개는 운영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됐고 앞으로의 사용 계획안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2월 중에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등심위 회칙 개선에 대한 논의의 결과는 본래 학생회 인원 2명이 참가하던 회의에 3명이 참가하도록 변경됐고, 비공개로 진행되던 회의 방식도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학생들은 이번 학생총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총회에 참가한 이 모(한국어문 2)학생은 "등심위 안건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세 가지 안건이 모두 학생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뤄진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었다."며 "이후에 학교 측에서 안건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이렇게 총회가 성사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물론 이번 총회를 통해 생각한 모든 것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학교에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했다는 것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클 것"이라고 총회가 성사된 소감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삼 학 승

학생총회 성사, 지금이 더 나아가야 할 시점

지난 9월 22일,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가 성사되었다. 정족수의 2배에 달하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섰고, 학교 측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학교와 학생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했다는 것은 분명 희망적인 신호이다.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판국에 급진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낸 돈인 만큼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총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문제가 등록금 인상분 환급, 적립금 사용처 공개 등 급진적인 부분에 치우쳐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는다.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에 발 벗고 나서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학생들의 관심에 힘입어, 그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학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수업의 질 개선이나 수강신청 문제, 혹은 90학점 전공 이수에 대한 부담 등 매 학기마다 반복되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 보는 것도 분명 필요한 자리였다.

한 학생이 학생총회 인터넷 과정에서 등록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문제이다. 높은 등록금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학생과 학교가 함께 고민해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학생총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권을 보장받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학생총회가 성사되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총회 성사 자체도 큰 의미로 다가오고, 많은 학생들이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뤄낸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더 이뤄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

김하늘 편집국장

- 3 "우리들은 살고싶다!"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 6 유럽과 웰 스트리트가 시끄럽다
- 7 조용한 클럽, 사일런트 디스코
- 8 우리는 포이동공동체입니다

지면안내

- #### 학생회소식
- 야간 총학생회, 사과대 학생회 : 10월 25일 오후 2시
낙산관 대강당 명사초청 강연회
 - 인문대 학생회 : 10월 25~27일 미래관 지하 회의실 취업아카데미
 - 공과대 학생회 : 중간고사 기간 셀프인쇄소

사 령
임
수습기자 이휘녕(역사문화 1)



제26회 한성문학상 현상 공모

참가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모집부문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5편 이상)

마 감 일 : 11월 4일(금) 오후 6시

발 표 일 : 11월 28일(월)
수상자 발표와 수상작은 11월 28일에 발행하는 한성대신문 458호에 게재

상 금 : 단편소설 60만원 (1명) / 시 40만원 (1명)

제출방법 : 한성공지 4008번 게시글에 첨부된 '한성문학상 출품작 정보'란에 내용 기재 후, 작품 앞면에 부착하여 방문 제출

문 의 : 760-4186 / 010-4534-8682 / press@hansung.ac.kr

장 소 : 학생회관 제1별관(우면취급소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 한글 파일에서 원고지로 작성하지 마시고, 일반 문서 모양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상작은 공모작품의 수준에 따라 각작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1 현무제 되짚어보기

무대공연은 좋았으나 부스행사 및 홍보는 아쉬워

지난 9월 23일 동아리연합회·공과대학생회·인문대학생회가 주최한 현무제가 열렸다. 올해 현무제는 동아리 공연, 한성가요제, 여대 댄스 배틀, 초청가수 공연 등의 무대행사와 동아리 전시회, 구석 축제, 캐리커처 등의 부스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초대가수 리쌍의 공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강우정(영여문 2)학생은 "리쌍의 공연을 보기 위해 계속 기다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대가수를 보러 참여한 것 같다."며 "작년에는 대중제에 비해 현무제의 참여가 저조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다음 축제에 적극적인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대가요제는 한성가요제로 이름을 바꿔 한성인의 화합을 도모했다. 가요제를 주관한 김지우(한성여중 1)학생은 "8개 팀 참가자의 실력이 모두 수준급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한성가요제에서 1등을 차지한 김문성(경제 3)학생은 "음정이 조금 불안했는데 1등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준 학생들과 좋은 점수 주신 청중 평가단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보였던 비보이 공연 대신 새롭게 선보인 여대 댄스 배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표(정보 2)학생은 "여대 댄스 동아리의 배틀을 가장 즐겁게 봤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

한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은 "공연에 참여한 일부 동아리가 몸매가 과하게 드러나는 의상을 입었다. 너무 눈요기에만 치중된 것 같아서 보기 불편했다. 그나마도 호응이 적어서 민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환승(기계 3)동아리연합회장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공연이 즉흥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 팀의 공연을 사전에 심의하지는 않았다. 선정성에 대해서는 협의가 부족했다. 앞으로 주의 기울여야겠다."고 밝혔다.

올해 현무제의 라운지퍼터는 가면 무도회 컨셉으로 진행됐다. 당초 인문대 학생회측은 가면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을 입장을 못 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학생은 "가면무도회라는 컨셉은 신선했다. 그런데 가면을 쓴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았다. 입장하기 위해 일부러 가면을 구입한 것이 조금 아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아름(영여문 3)인문대 학생회장은 "가면을 쓴 이유는 학생들 간에 편안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초반에는 잔잔한 음악 위주로 선곡을 했다. 비록 많은 인원이 가면을 착용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부스 행사 및 홍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

날 당초 예정되어있었던 대형비밀방, 트램폴린 등의 부스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조혜연(의생활 1)학생은 "대중제에 비해 부스 행사 개수가 부족했다. 수입을 마치고 왔더니 그마저도 심의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송희(영여문 1)학생은 "현무제가 있다는 사실을 당일에서야 알았다. 어떤 무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홍보 포스터가 자세한 사항을 전해주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환승 동아리연합회장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때문에 부스 행사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무대행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학생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린다. 부스 행사 철수 시간은 동아리의 자율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무제 바로 전날 전체 학생총회가 있었다. 학생총회가 실패할 경우의 침체된 분위기까지 예상해야 했기 때문에 포스터 부착도 조심스러웠다. 또 대금 지불의 문제로 행사 일정 확보도 다 포스터 인쇄를 먼저 진행해야 했다. 일단 정해진 사항만 전달하려 보니 정보 전달이 상세하지 못했다."고 학생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동아리 부스 행사를 진행한 야구동아리의 서진원(경영 3)학생은 "구석축제 이벤트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현무제가 우수 회원을 모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경쟁력 있는 공학인 양성을 위한 한성공학경진대회 열려

공과대학이 주관하는 제7회 '한성공학경진대회'(이하 공학경진대회)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낙산관 3층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행사에는 학과의 특성인 살린 논문, 로봇, 어플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출품된 작품은 낙산관 체육관에 이틀 간 전시되었으며, 둘째 날에는 출품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8팀, 장려상 11팀, 논문우수상 1팀, 논문장려상 1팀으로 모두 29개 팀이 수상했다. 이날 대상을 차지한 'BIT-PERFORMER' 개발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상장을 수여했다. 조혜경(정보통신공학과)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해 개발한 'BIT-PERFORMER'는 3D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치이다. 사용자가 취하는 다양한 동작

에 따라 로봇이 악기 연주를 하고, 스크린에는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연출된다.

'BIT-PERFORMER'의 개발자 중 한 명인 오세민(정보 3)학생은 "학교를 다니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대상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다. 대회가 끝나고 나니 '우리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교 및 공학 관련 상식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풀 학생들에게 상품 증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공대 학생이 사전에 응모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16GB USB 메모리와 500GB 외장하드를 증정했다.

이날 행운권 추첨식에는 응모한 학생들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당첨자를 여러 번 추첨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공학경진대회에 출품된 작품을 학생에게 설명하고 있다

간추린소식

독감예방접종 실시 방식 변경

우리학교 구성원은 오는 31일까지 김명선 내과의원에서 1만8천원에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예방접종 시에는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건강관리실에서 접종하면 예년과는 달리 직접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시행개정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권추관(총무인사팀)팀장은 "이런 상황을 학생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은 혼란은 없을 것 같다"며 "환절기라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키워서 학교생활이나 수업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접종 가능 시간은 월-금요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이다.

교육훈련지원금 구비서류 추가

11월 1일부터는 교육훈련지원금 신청시 기존 서류에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각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졸업시까지 교육훈련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이며, 접수 마감 기한은 11월 30일이다.

오진형(취업지원팀)팀장은 구비서류의 추가 접수에 대해 "교육훈련지원금 제도가 10여년에 걸쳐 운영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사전 조사차원에서 서류를 추가하게 되었다"며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1월 1일 신청분부터는 추가 구비서류 미제출시 교육훈련지원금 지원이 제한된다.

야간 총학생회 간식자판기 설치

18대 야간 총학생회 'Talk! Talk!'에서 간식자판기를 설치했다. 지난 선거 당시 "매점 이용하기 힘든 야간 학생들을 위해 간식자판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자판기는 현재 미래관 앞 휴식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이해선(멀티 3)야간 총학생회장은 "2주 전쯤 설치되었고, 자판기 업체는 기존에 학교와 거래하던 자판기 업체로 선정했다. 학생복지위원회 구성원들과 총학생회장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설치할 수 있었다"며 "학우들의 이용도가 높으면 차후 탐구관 등 다른 건물에도 확대 설치할 것이다. 많은 사랑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준(한국어문 1)학생은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을 때 야간 수업 후에 이용해 봤는데 학교 밖 편의점까지 간다고 하니 편했다"고 이용 소감을 말했다.

인문대 취업아카데미 개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미래관 지하 회의실에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인문대 취업아카데미가 열린다. 초빙된 강사는 교육 컨설팅 전문 업체 이미지인의 홍정화 대표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면접에서 상대방에게 인상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다룬 예정이다.

윤희정(인문대학)교수는 "학생들의 면접 준비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사이다. 학생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1:1로 지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올해 하반기 취업시즌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강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이다. 인문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부 사무실을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7일까지이다. 모집 인원은 각 학부당 선착순 15명이며, 교환학생에게 우선권이 있다.

동정란

김효웅(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교수 김 교수는 지난 5일, 2년 임기의 한국컴퓨터그래픽산업협회 감사로 선출되었다.

나은미(언어교육원)교수 나 교수는 지난 9월 23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수 학술포럼에서 우리학교 '온라인 철학 시스템 및 철학 지원'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학 글쓰기에서 철학지도 교육의 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9월 19일 발행한 454호 1면에 게재된 '2학기 불거리 현무제 23일 열린다' 기사에서 현무제가 원래 동아리 축제인 옴비제인 것으로 나왔으나, 옴비제와 공대축제가 함께 열리게 되면서 명칭을 새로이 정한 것으로 수정합니다.

또한, '낙산제전은 열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낙산제전은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정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한 달 넘게 방치된 체육분과실

시설물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주의 필요해

여름방학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체육분과실의 바닥 매트 교체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공간을 사용하러 온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여름방학 동안 체육분과실 안은 빗물이 차 매트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본래 체육분과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한걸, 한울 등의 체육 동아리들은 오랜 기간 연습을 하지 못해 동아리 활동에 지장이 발생했다.

김지인(무역 3)한울 회장은 "현재 부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은 체육분과실 뿐이다. 그마저도 한 주에 2회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바닥재가 전부 벗겨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11월에 전국 대학교 태권도 대회가 있는데, 4주가 넘게 준비를 못해 곤혹스러웠다"고 호소했다. 체육 동아리들의 항의가 거세지던

서 동아리연합회에서는 학생지원팀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관승(기계 3)동아리연합회장은 "방학동안 체육분과실 매트를 모두 들어낸 상황이었다. 학교 측에 신속한 매트 교체를 요구했지만 생각보다 시일이 늦어져 동아리들이 피해를 봤다. 아마도 학교에서 매트를 사는데 시간이 많이 쓴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식(학생지원팀)교수는 "상황 파악과 매트의 공장 출고가 늦어지다 보니 시일이 많이 걸렸다. 단순한 매트 교체도 등록금을 사용해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했다"고 매트 교체에 시간이 걸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대식 교수는 "이전부터 학생들의 매트 교체 요구가 자주 있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깨끗하

게 써야하는데, 신발을 신고 매트를 밟는 등 시설물을 자주 훼손하고 있다"며 "체육분과실은 쓰는 학생들이 많아 일일이 학교에서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학생들이 좀 더 시설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학교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부주의한 사용을 지적했다.

김지인 한울 회장 역시 "학생들이 운동화를 신고 들어와 흙을 묻히거나 하이힐을 신고 매트를 밟는 등 체육분과실을 너무 더럽게 사용해서 동아리 연습에 지장이 많았다. 동아리연합회에서도 함께 쓰는 체육분과실인 만큼 깨끗하게 써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같이 쓰는 시설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9월 23일 현무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초대가수 리쌍의 공연에 학생들이 열광하고 있다. 취재부

Journalist!

記者!! 기자!!!



기자를 막연하게만 꿈꾸고 있습니까?
한성대신문의 기자가 되어
당신의 글로 세상을 표현하세요!

모집기간: ~ 10월 31일(월)

대상: 우리학교 재학생 1, 2학년

문의: 010-4534-8682

*매월 활동비와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우리들은 살고 싶다!”

반값등록금 무산과 대학구조조정으로 궁지에 몰린 대학생들

지난 9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저녁 7시부터 반값등록금 실현과 잘못된 대학구조조정 규탄을 위한 촛불집회가 있었다.

올해 초, 대학생들의 생활고와 비싼 등록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이 등장했지만, 대학 전반적으로 장학금 확대를 통한 등록금 완화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한국대학생연합회(이하 한대련)는 반값등록금 시위활동을 기획하고 올해 초부터 1인 시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을 전개했고 지난 6월 10일과 9월 29일에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9일 있었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등록금 문제와 더불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박자(속명여대 총학생회장)대변 의장이 전국 대학생 4대 요 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반값등록금 실현 ▲비리 사학 재단 퇴출 ▲국공립 대학 법인화 폐기 ▲잘못된 대학 구조조정 중단 등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회 측 추산으로 총 7천525명의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다. 학생들은 '1조 5천억 필수 말고, 5조 반값등록금 실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대 행사를 즐겼다. 거리에 나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실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여한 졸업생 김경혜씨는 "6월 집회에 자극받은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등록금 대안 정책을 냈지만 방향 중과 방학 후에 보니 제대로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것 같아 연대하기 위해 나오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이들 안고 나온 한 아주머니는 "이전부터 집회 등에 자주 참여했는데 오늘은 대학생들이 집회를 한다기에 나오게 되었다. 대학 다닐 때, 등록금 액수가 계속 오르다가는 천만 원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10년 만에 현실화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는 당장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된 학생들도 있었다. 거리 행진에 참여한 김나래(성신여대) 학생은 "이번 학기엔 분납으로 등록금을 내기로 했다. 이번 분기는 어렵게 등록금을 납부했지만 다음 분기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부모님께 납부를 부탁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치권에서 진정성 있는

등록금 대책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번 촛불집회에는 반값등록금 문제 뿐 아니라 잘못된 대학구조 조정 문제 또한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정부에서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는데, 퇴출 기준에 취업률을 포함시키면서 추계예대대학 등 순수 예술을 지양하는 여러 대학들이 퇴출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취업률을 퇴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정부에 대한 예술대학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 때문에 이번 집회에는 예술대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6월 10일 있었던 촛불집회보다 훨씬 높았다. 예술대 학생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조서연(속명여대)대 학생회장은 기조 발표에서 "이런 위기를 연대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

여하게 되었다. 음대의 취업률이 다른 대학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취업률을 기준으로 삼는 대학 구조조정을 비판했다.

또 김현경(이화여대조형예술대) 대표는 "예술계열 학생들이 연대를 강화해서 예술을 자 재듯이 확실화하는 정부에게 핑계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학구조조정 반대 의지를 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에 먹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던 추계예대 학생은 "나는 대학에서 꿈을 그리라고 배웠지, 돈을 그리라고 배운 적이 없다. 취업률을 앞세운 잘못된 대학구조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부르짖기도 했다.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행진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찰들의 포위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우리들은 살고 싶다.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라고 외쳤다. 이후 학생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음식포만구약 앞 사거리로 향했다. 경찰은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게 계속 집회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이어나갔다. 사거리 밖에 있던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들의 행동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었다. 결국 이날 경찰은 사거리를 점거한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박자는 의장을 포함한 49명의 학생을 강제 연행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자주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에 98.3%에 이르는 대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관람료가 가장 부담되는 행사로는 '대중가요 콘서트'(35.1%)와 '클래식 음악회·오페라'(35.1%)가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화'(11.1%), '뮤지컬'(5.7%),

통계로 본 대학사회

대학생 98.3%, 문화예술행사 관람비용 부담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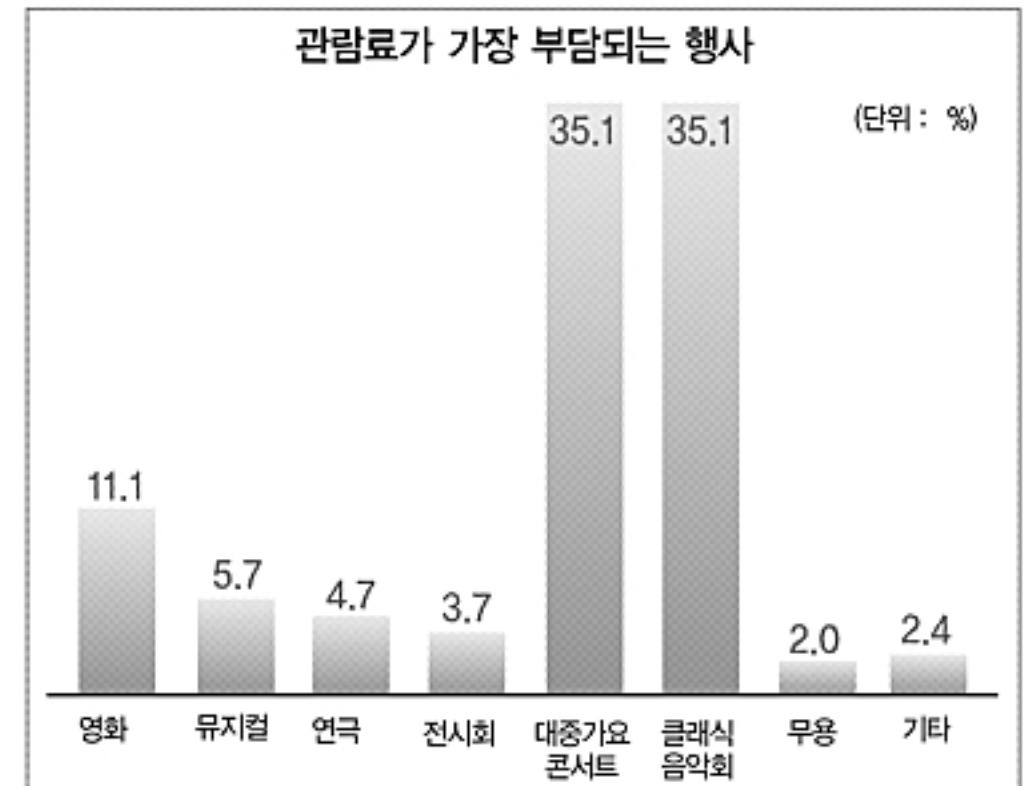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6월 1일~8일까지 대학생 296명에게 대표적인 문화생활로 꼽히는 공연, 영화 등의 관람 현황을 물었다. 그 결과, 즐겨 관람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는 상대적으로 관람 비용이 저렴한 '영화'(89.5%)가 첫번째로 꼽혔다. 이어 '연극'(22.3%), '전시회'(18.9%), '대중가요 콘서트'(8.8%), '클래식 음악회·오페라'(8.8%) 순이었고, 즐겨 관람하는 행사가 '없다'(5.1%)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

'한 달에 한 번'(35.1%), '2~3달에 한 번'(30.7%), '한 달에 2~3번'(14.5%)이라는 답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거의 하지 않는다'(11.8%)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일주일에 한 번'(5.7%), '일주일에 2~3번'(2.0%)이라는 답변은 비교적 적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자주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에 98.3%에 이르는 대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관람료가 가장 부담되는 행사로는 '대중가요 콘서트'(35.1%)와 '클래식 음악회·오페라'(35.1%)가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화'(11.1%), '뮤지컬'(5.7%),



'연극'(4.7%), '전시회'(3.7%), '무용'(2.0%), '기타'(2.4%) 순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인 59.1%는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드는 비용이 높다고 평가했다.

대학생들이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3만8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민수(행정 3)학생은 "1달에 2만 정도는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편"이라며 "예전에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들의 참신한 소재에 끌려 저렴한 공연도 많이 관람했지만 기대에 못미쳤다. 지금은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뮤지컬은 고급예술이라는 인식이 있고 비싼 반면, 연극은 찾아보면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명을 요청한 한 학생은 "연극

표는 영화비에 조금 더 보태면 구입할 수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발걸음을 하기 어렵다.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대학생들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문화예술계에서 가격할인을 통해 문턱을 조금만 낮춰주고 홍보를 많이 하면 대학생들도 공연을 많이 보러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아름(한국어문 3)학생은 "가끔씩 문화생활을 하는 편이다. 찾아보면 저렴한 공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의 문제인 것 같다"며 "공연이나 연극을 보려면 대학로나 큰 강을 가야하기 때문에 그보다 가까이 있는 영화관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대학 엿보기-동국대

총장님과 직접 소통 나눠요

우리학교에서 학생총회가 열리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소통의 부재이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홈페이지에 '총장과의 대화'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다.

동국대학교 박현민(CS경영팀)팀원은 "총장과의 대화는 학내 모든 구성원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온라인 창구다. 총장이 퇴근하고 난 후에도 24시 운영을 계속하는 온라인상의 총장 집무실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국대학교에는 문자상담, SNS 등 학교 구성원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통에는 직원, 교수뿐만 아니라 총장도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주로 행정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동국대학교의 'e-민원' 게시판과 달리 총장과의 대화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올라온다. 학교 정책과 제도에 대한 건의부터 개인적인 면담을 신청하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학생, 교수, 직원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이 게시판의 글 작성 권한이 열려있다.

동국대 학생들은 한 달 평균 7~10건 정도의 글을 올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게시물은 총장이 읽고 직접 답변을 달아준다. 단, 특정 업무와 관련된 성격의 일부 게시물은 담당 부서에 지시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한다.

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교칙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 박현민 팀원은 "원래 동국대학교의 장학생들은 장학금 관

련 교칙에 따라 반드시 다음 학기 등록금을 해야 했다. 때문에 다음 학기를 휴학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학생이 총장과의 대화에 이러한 장학금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바로 다음날 총장의 지시로 정책 조정 회의의 안건에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고 규정을 개선하였다.

다만 총장과의 대화는 작성자만이 해당 글과 총장의 답변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현민 팀원은 "총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게시판 특성상 급박하고 민감한 사항이거나 개인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온다. 이 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총장과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총장과의 데이터'라는 행사도 있다. 이 행사는 매 학기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50~80명의 학생과 함께 진행한다. 총장과의 데이터에서 학생들은 다과를 나누며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눈다. 이 역시 소문 사임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교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박현민 팀원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교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함께 발전해나가는 상생의 관계로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지영 기자 guylee@hansung.ac.kr

대학만평

권연오(애니제품 4)



제13회 한성 교내 영어수필대회

- 대상_ 한성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주제_ 자유
- 형식_ A4 3매 분량 (hwp파일, 글꼴:바탕, 글자크기:10, 줄간격:160%)
- 제출 방법_ 참가지원서: 직접 제출 (영자신문사 사무실) 원고: e-mail 제출(jeuk1234@hansung.ac.kr)
- 접수 기간_ 2011년 10월 31일(월) ~ 11월 03일(목)까지
- 상금_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1명) 우수상- 상장 및 상금 15만원 (2명)

- 문의_ 한성대학교 영자신문사 사무실 (별관3층) ☎ (02)760-4195, 편집국장 010-3292-4678

- * 타 영어수필대회 참가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참가지원서 양식은 한성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시상자는 참가자의 수와 작품의 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주최: Hansung Today / 후원: 한성프레스센터

미디어랩 사태, 방송광고 시장은 미궁 속으로

광고 판매대행 미디어랩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

우리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수많은 상품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약품들이 일반 의약품으로 변경되어 광고에 등장하기도 하고 노골적인 PPL(PPL: Product in Placement) 영화, 드라마 등에 자사의 특정 제품을 등장시켜 홍보하는 것 역시 심화되는 추세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주인공 박신양의 회사는 'GD 모터스'이며, '에정만만세'에서 이보영이 운영하는 직장은 '죽이자기'라고 '대놓고' 광고를 한다. 지금도 특정 케이블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선 계열회사 제품이 방송에 자주 노출되는 방식으로 방송사와 광고주의 관계가 시청자들에게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랩(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법법인) 통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디어 광고시장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질 것이다.

'미디어랩'은 방송광고를 방송사 대신 판매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로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 역할을 '코바코(Kobacco)'라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에 헌법재판소가 코바코의 미디어랩 독점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면서 이 미디어랩을 코바코 외의 민영회사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유영주(언론연대)상임정책위원은 "민영법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에 18대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고 있어 방송사들도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 종편도 이 틈을 타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문제가 커진 것"이라 설명했다.

공영미디어랩은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칸

막이' 역할, 종교매체, 지역매체 등의 취약매체를 지원하는 손기능이 있다. 연계 판매 형식으로 A기업에서 B방송국에 광고를 수주하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3번 광고를 내고 B방송국의 지역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한 개를 때어주는 식이다. 또한 C기업의 비리를 D언론사가 고발한 경우 C기업은 D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않아 D언론사가 방송사를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 미디어랩의 존재로 D언론사의 광고 영업은 미디어랩사가 대신하므로 광고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보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기능을 왜 정부가 독점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광고 판매대행사는 하나의 회사이므로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디어랩에 관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영주 상임위원은 "민영 미디어랩에 대한 입법을 하지 않아 12월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즉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 각자 광고 직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입법되지 않은 광고주 역시 수많은 방송사에 직거래 하거나 나름대로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도 자사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광고 직거래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유영주 상임위원은 "이제 광고주 역시 수많은 방송사에 직거래 하거나 나름대로 곤란하고, 방송국 입장에서도 광고주들의 눈치를 보며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이에 선정적이거나 상업적으로 치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방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미디어랩 입법은 담보상태에 빠진 채로 종편 출범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

히 국회는 미디어랩 입법에 대해 손을 놓은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미디어랩 관련법을 심의했으나 종편의 미디어랩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1공영 1민영이라는 기존 입장을 1공영 2민영으로 선회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날 '1공영(KBS, EBS) 1민영(MBC, SBS, 종편)과 종편의 자율영업을 제시했다. 특히 종편의 경우 자율영업을 원칙으로 하며, 3년 뒤 광고시장 상황 등을 보고 미디어랩 포함 여부를 논의하고자 했다. 신생 매체로서의 종편이 방송시장에 정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공영(KBS, EBS) 다(多)민영(MBC, SBS, 종편)'을 원칙으로 종편도 미디어랩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사실상의 1사 1랩이다. 종편이 지상파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동일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보도제작과 광고판매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편이 신생매체임을 감안해 최대 3년

까지 미디어랩 포함을 유예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표명에 오히려 한나라당의 입장이 미디어랩 입법 취지에 맞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경우 미디어랩 소유 및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방송사가 미디어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공영 3민영 랩 체제인 프랑스의 경우, 공영 랩 '에프티페'(FTP)는 공영방송 뿐 아니라 20개 케이블 위성 채널의 광고를 위탁판매한다. 또한 방송법에 의해 광고요금 등 모든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지상파 민영방송이 없는 네덜란드의 경우 1공영 랩 체제로 지상파 방송 3곳의 광고를 공영 랩 '스테르(STER)'가 판매한다.

반면, 민영방송 중심인 미국에선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4대 지상파 '시비에스(CBS)', '엔비시(NBC)', '에이비시(ABC)', '폭스티브이(FOXTV)' 등의 상업방송이 랩 없이 직접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거대 글로벌 미디어 복합그룹인 폭스티브이는 시청률 지상주의에 따른 선정성 문제가 꾸준히 불거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미디어랩 입법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있다. (© 미디어스)

얼굴 있는 거래, 공정무역

그린 액티브

"눈물 없이 생산된 의미 있는 초콜릿을 선물하세요!" 달콤한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혹사당하는 아이들의 눈물이 들어있다면? 그 맛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을 것이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는 아프리카 카산으로 약 25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지역의 농장에서 착취되어 왔다. 그 중 인신매매로 팔려온 아이들이 1만2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카카오는 유럽에서 가공하여 세계인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는 것이다. '착한 초콜릿'은 아동착취가 없는 농민과의 직거래를 통해 들어온 카카오를 사용하여 초콜릿으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인공첨가물을 첨가하지 않는 공정무역제품임을 표방하는 말이다.

'공정무역(Fair Trade)', 말 그대로 하면 공정한 무역, 공정하게 주고받는 것, 공정한 거래이다. 어떻게 하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전의 방식과는 어떻게 다를까? 공정한 무역은 보다 큰 평등을 추구하며, 소비자 및 생산자와의 새로운 만남에서 출발한다.

대화와 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나 불공정한 거래를 생략한다. 대신에 가난한 생산자에게 기회제공, 투명성과 책임감, 생산자의 실력 키우기, 공정가격, 성 평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상호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공정무역은 1940년대 미국의 텐사우전드 빌리지(Ten thousand Village)란 곳에서 수공예품 판매를 시작한 이래, 1950년대 후반 영국 국의 옥스팜이라는 구호단체에서, 그리고 196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월드숍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NGO들을 중심으로 사회운동가들이 선진국 단체들과의 관계 맺기에 적

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고, 축제를 열 정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NGO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어 2000년대 초에는 수공예품, 커피, 바나나와 같은 일부 품목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쌀이나 사과, 코코아와 같은 농산물, 설탕, 초콜릿, 와인, 맥주, 요거트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면제품, 청바지 같은 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을 공정무역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생산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산자들은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원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즉, 원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정한 거래를 원하는 것이다.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소비자들에게는 노동착취, 환경파괴가 없는 지구 전체를 위한 윤리적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준다. 공정무역은 지구촌이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회합적인 거래방식이다.

이제는 공정무역을 바라보는 시선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비 방식도 다양해졌다. 우리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소비자,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 창조자가 될 수 있다.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래도 소비를 멈출 수 없다면, 공정한 소비,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에 한 걸음 다가가보자.

* 공정무역 제품을 살 수 있는 곳 :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아름다운가게, 예코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생협, 생협연대, 친환경상품 예코숍

글 : 장미정 (사회환경교육센터 연구실장)

세상 속 우리

기독교 동아리 IVF의 강태웅(지정 3)학생을 만나다

대학생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 가져야



기독교 동아리 IVF의 사회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태웅(지정 3)학생을 만나보았다. 현재 IVF 동아리에서 사회부 리더를 맡고 있는 그는 사회 문제들과 관련된 일들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봉사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현재 기독교 관련 동아리들은 보수적이고 사회문제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학생 역시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사회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활동 계기를 밝혔다.

우리학교 IVF에서는 매년 '이슈파이팅'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진단하고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는 올해 이슈파이팅의 주제를 '포이동 화재사건'으로 정하

고,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의견을 기증받아 포이동에 전달했다.

그는 "이번 이슈파이팅의 주제를 포이동 화재사건으로 잡은 것은 죄파와 우파 등의 색채가 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포이동 화재사건은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주제가 포이동 화재사건으로 정해진 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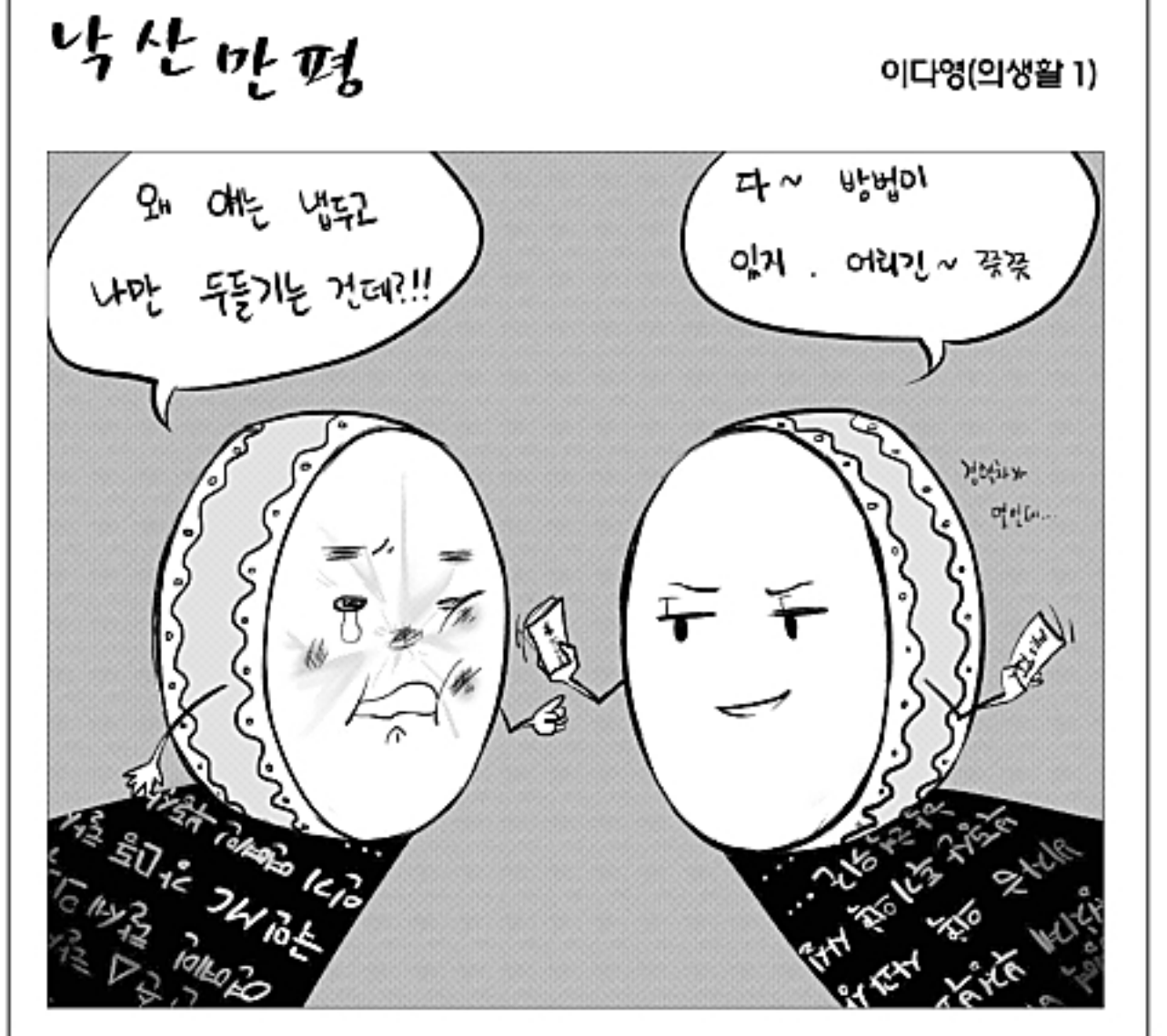
IVF에서는 포이동에 보낼 의류를 모으기 위해서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부스행사를 열어 의류 200여 벌을 기증받았다. 그는 "포이동에 직접 연락을 했더니 겨울에 입을 옷이 많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왔다.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할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 학생들에게 겨울옷을 기증받았다."고 말

했다.

이어 그는 "이번 부스 행사에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당초의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현무제나 학생 총회로 인해 홍보가 많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무관심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그는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대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다.

백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2011년도 향방기본 2차 및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안내

1. 일시

-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 2011년 10월 28(금) / 일일 09:00~18:00(8H)
- 동미참 2차 보충훈련 : 2011년 10월 31일(월) ~11월 3일(목) 총32H / 매일 09:00~18:00(8H)

2. 장소 : 덕릉예비군교장(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당고개)

3. 대상 : 한성대(원)교 학생예비군 중 동미참훈련 또는 향방기본훈련 불참 및 미 이수자

* 개인별 훈련 일자 및 시간 : 첨부파일 참조(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

4. 행정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규정된 예비군복장 착용(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및 바늘, 고무링)
- 09:00까지 입소, 지각할 시(09:30 이전 입소자) 추가 교육 1시간
- 09:30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하며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 됨
- 문의전화: 02-760-4176, 010-5075-6553(예비군연대 : 우촌관 608호) / 02-934-8764~5(덕릉예비군훈련장)

5. 기타

- 대중교통 이용 시 :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33번, 33-1번, 10-5 번 시내버스 승차 당고개 덕릉예비군훈련장 하차 / 입소
- 자가 차량 이용 시 : 삼선교 → 미아리교개 → 드림랜드 → 당고개역 → 덕릉예비군훈련장
- 훈련 간 학교 수업출석 인정 등에 필요할 경우 개인별 학교예비군연대(우촌관 608호, 전화 02-760-4176)에 방문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훈련에 참가 바랍니다.

* 훈련 무단 불참 시 불이익을 받으며 개인별 훈련일자 및 시간은 한성공지 첨부파일에 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하여 참석바람.

* 전입신고 미 실시한 대학(원)생 예비군대원은 한성대학교 예비군연대에 전입 신고를 하고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 화 정



김용식 교수 (경영학부)

황금과 같은 그대에게 투자하라

값이 무섭게 쳐솟고 있다. 10년 전만해도 5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1돈짜리 돌반지를 지금 시세로 사려면 25만원이 족히 든다. "10년 전 금에 투자를 했었다면 최고의 투자를 한 것이다"라고 다들 말한다. 현시대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투자철학 역시도 가치주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를 뒤흔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에도 "경기침체는 새로운 기회"라고 말하며 직접 투자에 나선 것은 유명한 일화다. 결국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위풍당당하게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나의 인생관은 '10년 후를 생각하여 지금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6년 전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들어가 박사과정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에는 이런 인생관이 크게 작용했다. 인정

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머뭇거리다 결론을 해서 아이까지 생긴 처지에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치이기도 했고, 아내와 아이에 대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도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10년 후의 나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성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그 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 인생을 건 도박과 같은 결정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나의 대한 믿음과 자신감 하나로 '10년 후의 나' 라는 가치주에 투자한 것이었다.

'아르노카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노려야 할 것은 신인상이 아니라 그대의 삶의 주연상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당장의 신인상에만 연연한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자 원치 않는 그러나 남들과 비슷한 스펙

을 쌓기 위해 오늘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신인상보다는 먼 훗날 그대 인생의 주연상을 받기 위해 그대가 원하는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그대만의 내공을 쌓는 것이 더 값싸다는 그분의 뜻에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동감한다.

아브라함 링컨 역시도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여덟 시간 주어진다. 그 중 여섯 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라고 말했다. 왜 꼭 여덟 시간일까? 또는 여섯 시간일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지만, 그 말의 의미는 충분히 전해 온다.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자는 제 발로 찾아온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른 채 지나칠 것이다. 하지만 그 기회를 위해 도끼를 갈았던 자는 기회가 왔을 때 갈았던 도끼질 한 방으로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고 말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주저하

지 말라고. 그렇다고 성급해하지도 말라고. 내 인생은 오직 나의 것이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한 번뿐인 내 인생인가? 어느 광고에서도 나오지 않았는가? "난 소중한니까!" 지금은 힘이 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움과 고통 앞에는 찬란한 미래도 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이 차곡차곡 쌓여 10년 후 모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10년 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대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그날에 그대의 멋진 모습을 위해 지금의 도끼질을 잘 버려길 바란다. 그날에 통과한 한 방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그대를 위해 황금과 같은 값싼 투자를 하길 바란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대라는 가치주'에 말이다.

| 사 설 |

이 가을에 꿈과 미래를 준비하라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다. 가을 하늘을 보면서 가슴을 열고 푸르고 넓게 심호흡을 해보자. 바야흐로 꿈과 마음을 살피고 결실을 향해 나아가갈 때이다. 젊음이라는 미래의 주역이며 학생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청년학생에게 있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이다. 미래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르고 또한 높다. 그리고 무한히 열려있다.

꿈을 꾸어라. 꿈을 꾸는 것은 청년의 특권이다. 미래에는 꿈이 있으며 청년은 미래를 소유하고 있다. 꿈은 당신의 지향하는 방향과 높이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고, 원대하고 고귀한 것이어야 한다. 꿈은 기존의 틀에 새롭게 그리는 그림이다.

청량한 가을 산에 올라서 자연과 바람과 하늘을 느끼고 새로운 기운을 받길 바란다. 가끔은 귀뚜라미 우는 가을밤에 친구와 더불어 밤새워 미래의 희망과 계획을 토론했던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밤새워 과제를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신들에게는 그 모든 경험들이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꿈을 그리는 바탕이 될 것이다.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답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어찌피 미래를 위해서 당신들은 알을 깨고 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항상 밝은 곳에서는 빛의 고마움을 모를 수 있

다. 아픔을 알면 빛의 고마움을 더욱 절실히 느낄 것이다. 쓴 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은 더욱 달게 느껴지는 것이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법이다.

당신의 꿈은 실현되어야 한다. 꿈이 '모래 위의 성'이 되지 않으려면, 꿈은 철저히 준비되고 꿈과 노력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승리는 준비된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처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필요로 했듯이, 꿈의 실현은 이러한 영양분들을 필요로 한다.

당신은 그 동안의 학교생활을 통해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으로 체득했을 것이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들을 지새웠던가. 당신이 노력하고 준비한 것들이 당신을 배신한 적이 있구나. 어떤 면에서 인생은 상당히 공평한 부분도 있다. 특히 준비하기 위해 땀을 흘린 노력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시대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어서 혼란스럽고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경쟁력이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회가 언제 당신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회가 당신에게 왔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행운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행운을 기원한다.

기자가 만난 사람

전국대학연극제 보러 대학로로 오세요!

연극동아리 낙산극회 부회장 남정현(경영 2)학생을 만나다



연극은 가난하고 배고픈 일이다? '전국대학연극제'를 추진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에게는 연극이 더 이상 배고프고 힘든 일만은 아니다. 이들은 꿈을 먹고 살기에 연극이 힘들지만은 없다고 말한다. 전국대학연극제 운영팀 소속이자 우리학교 연극동아리 '낙산극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남정현(경영 2) 학생을 만나보았다.

'전국대학연극제'는 전국의 대학 연극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연극축제이다. 대학생 연극동아리가 학교 외에 공연할 장소를 찾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남정현 학생은 "소극장이라도 무대를 빌리는 금액이 대학생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국의 연극동아리들이 모여 대외에 공연을 선보이는 전국대학연극제(UDCF)를 마련했다. 그는 "다른 학교와 교류를 맺는 것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공연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전국대학연극제는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올해 속명어대 연극동아리 '반국회'의 주관으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스펙 홍수의 시대에 대학생이 공연예술을 직접 하기는 쉽지 않다. 남정현 학생은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 낙산극회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연극을 하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며 "또 연극은 여러 사람의 협동을 필요로 하는 장르이다. 그래서 같이 연습하는 동안 선·후배간의 친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전국대학연극제에서 행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남정현 학생은 "운영팀의 주요 업무는 행사를 후원할 단체를 알아보고, 다른 학교에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홍보팀, 판리팀 등의 부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연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참여한 동아리 모두가 연극공연을 준비한다.

전국대학연극제의 운영과 낙산극회의 연극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는 어떻게 이런 대외활동에 합류하게 되었을까?

남정현 학생은 이에 대해 "전국대학연극제 주최 측에서 낙산극회로 연락을 했다. 이전 기수도 가입이 되어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활동이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속명어대 연극동아리 '반국회'의 주관으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동아리 활동을 대외활동의 연장선상에 올려 그가 얻은 이점은 무엇일까? "전국의 동아리가 모이다보니 그만큼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가진 동아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동아리 운영 방법, 공연 시스템 체계 등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안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타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12월, 낙산극회의 교내 정기공연이 있다. 남정현 학생은 "12월 정기공연을 위해 연습 중이다. 같은 내용의 공연이 전국대학연극제에 올라가기도 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또한 그는 "전국대학연극제는 대학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학생들이 크게 호응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회 전국대학연극제는 5개 프로 그룹으로 8일간 진행되었으며 서울·경기지역 20개 대학교의 연극동아리가 참여했다.

오지영 기자 guiyee@hansung.ac.kr

기자수첩

목적만 있는 촛불집회



지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도로를 점거하고 사거리에서 드러누운 학생들의 모습도 그 학생들에게 물을 퍼붓

는 경찰의 모습도 매우 충격적이었다. 결과는 학생 49명의 연행이었다. 이 모든 행위가 답답하게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울분과 고통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이런 과격한 행동을 반드시 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었다.

과거 대학생들의 거리 시위 역시 과격하고 집요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성세대 자체를 비판하려는 목적을 가진 집단이었다. 다시 말해 그 과격함이 나타낸 근거와 목적이 명확했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만큼 결과 역시 성공적이었다. 또한 이들은 독립적인 집단이었다. 정치 세력의 원조에 기대려고 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서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생들의 시위는 목적 자체에만 집중할 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기반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보여주는 용도로 시위를 이용하

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도로 점거만 봐도 그렇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학생들이 도로로 달려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폭력행동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 방해가 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번 시위에서는 과거의 정치적 독립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대 행사 중 정치 인사들의 기조 발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심지어 학생이 나와서 눈물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해도 정치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했다. 물론 이런 정치인들의 개입이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것은 활동의 자립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 앞으로도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치권과 대학생들의 결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이고 이것은 지속적인 대학운동에 해악을 끼칠 것이다.

확실히 현재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시위나 집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대학생들의 활동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일 수 없을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가로세로

①					②		③
				④			
		③	④			④	
⑤	⑥				⑥⑥		
		⑦			⑧⑦		⑨

정답자 발표
 박승기(무역 1) 010-XXXX-3226
 이현영(컴공 1) 010-XXXX-5160
 이재현(한국어문 2) 010-XXXX-0705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이번 신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그 기사의 소감을 적어주세요.

가로 세로

- ① 학생들이 모여 특정 인건과 관련한 학생 대다수의 뜻을 학교에 전달하려는 단체행동으로, 우리학교에서는 지난 9월 22일 열렸다. (기사참조)
- ② 우등생과 열등생은 따로 나누어 놓은 판. 또는 그러한 빈을 포함한 학습 구성 체계
- ③ 우리학교 학군단사와 학생들 사이에 있는 건물이자, 기차역 대여실이 있는 건물. 구 강아들
- ④ 사진, 실물 등에 강한 광선을 비추어 그 반사광을 렌즈로 확대하여 영상화하는 조명 기구. 또는 그 광빔
- ⑤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게임 상 같은 편 동료들 공격하거나 죽이는 일. 우리말로 순화하면 '하곤 공격'이다.
- ⑥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주는 돈. 동아리○○○ 등이 있다.
- ⑦ 빈이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
- ⑧ 한국 소식지에 우리식으로 고추장을 가미하여 알면하게 끓여 먹는 짜게. (기사참조)
- ① 대학에서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설치한 팀.
- ② 등록금을 50% 인하하기 바라는 대학생들의 소망이 들어간 시사용어. (기사참조)
- ③ 관세청에 딸려 있는 기편의 하나.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 설치되어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 등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 ④ 이혼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때, 크메르루에 의해 수천 명이 학살되어 매장된 곳. 영화 제목이기도 하다.
- ⑥ 치안 관련 관공서의 기초 단위. 구 파출소.
- ⑦ 가제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중력(重力)에 반하여 위로 뜨는 힘. 물체에 작용하는 ○○이 중력보다 크면 뜬다.
- ⑧ 주로 대학에서 강의나 강습 때를 가리키는 것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한 줄 몇 글

Q.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

다가오는 졸업·취업 시즌을 맞아 각 공개기구와 단체에서는 대학생이 존경할만한 명사를 학교로 초청하는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학생이 가장 존경할만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 [인철수 카이스트대 교수] 과학기술적 재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균형있게 갖춘 분이라 생각합니다. 김미래(역사문화 4)
- [송희창 케이일리츠 사장] 사건에 대한 집중력 추진력과 노력이 일품이다. 추대호(무역 2)
- [스티븐 잡스 애플 CEO] 그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김소영(무역 2)
- [세종대왕] 오늘날의 한국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자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명진(한국어문 2)
- [김병만 개그맨]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현수(행정 2)
- [김어준 가수] 강연회 성사되면 좋겠습니다! 김우석(영어영문 3)
- [최창희 교수님] 수업이 너무 재밌습니다. 박진숙(경영 4)

이번 호 당첨자는 김미래(역사문화 4), 추대호(무역 2), 이현수(행정 2)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문화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모든 한성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한성대신문사에서는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내용이든 신문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소재 예시
-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것
- ○○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우리 동아리를 자랑합니다!'
- '나는 고발한다, ○○○을...'
- 한성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영화, 여행지 등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4~5매(A4의 절반 정도)
 보내주실 곳: press@hansung.ac.kr
 기타 문의: 760-4186, 010-4534-8682

보내주신 글이 채택되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니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유럽과 월 스트리트가 시끄럽다

금융공학 뿐 아니라 사회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

“금융 자본은 손실을 사회에게 떠넘기고 수익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외국인 경제인 뿐입니다” 평소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 표현은 토론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세계은행의 부총재라면 사정이 다르다. 발언의 주인은 다름 아닌 J. 스티글리츠 교수이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처럼 말하게 된 이유는 이렇다.

현재 미국의 최대 이슈는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자(Occupy the Wall Street)’라는 구호로 무장한 일군의 청년들과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 시위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99%이며, 소수 1%의 탐욕과 부패에 고통 받아 왔던 미국시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이런 부정한 질서를 혁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전역으로 시위는 확산되고 있으며,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호주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리스 총파업에 연대의 성명서를 내보내기도 했다.

J.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언은 바로 이들이 있는 뉴욕의 한 공원에서 행한 강연 중 일부였다. 이들의 시위에 동조하는 사람은 J. 스티글리츠 교수뿐만 아니라 노임 촌스키, 수잔 셔렌든, 그리고 마이클 무어 등 미국의 유명인사들이다. 노임 촌스키는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들은 너무 커서 파산을 그대로 지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존재였는데 too big to fail 사실은 책임을 묻고 감옥으로 보내기엔 너무 큰 세력 too big to jail이라고 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신용등급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거의 녹다운 직전인데,



▲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자 라는 구호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SCOOP)

대표적인 경우가 ‘GIIPS국가’들이다. ‘GIIPS 국가’란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을 말한다. 이들은 유럽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나라로 독일과 프랑스와는 경제적 규모나 생산력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은 독일에 비해 생산량이 2배나 떨어진다. 1우로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각 국가마다 서로 달라서, 같은 경제권으로 묶는 것은 가난한 나라에게는 좀처럼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3대 트로이카는 재정정책, 금융정책, 그리고 외환정책이 있다. 그런데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정책과 외환정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

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유럽 연합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금융정책의 핵심인 정책금리 조정도 못하고 단일 통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환정책도 구사할 수 없다. 결국 쓸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 하나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안정-성장 협약’으로 인해 자율적인 재정정책 구사가 힘들기 때문이다. 1우로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각 국가마다 서로 달라서, 같은 경제권으로 묶는 것은 가난한 나라에게는 좀처럼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이들 국가들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찡찡했던 것은 아마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의 대항은행들이었다. 이들은 위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를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게 막대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제발행을 통해 이들 국가에게 대형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최근에 그리스의 동해안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된 런던 정경대학의 C. 라파비차스가 나레이션을 한 ‘부채가 지배하는 사회 (Debtocracy)’에서는 이런 대목이 등장한다. ‘정치권이 골드만 삭스 같은 대형금융기관에게 빌린 막대한 자금을 무엇을 위한 차입이었던가? 그것은 국민의 복지나 국민경제의 발전보다는 정치세력의 자기목적적 위안 수단 아니었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돈은 유엔헌장 59조에서와 같이, 갚지 않아도 되는 구린(Odious debt)”이라고 말한다.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금융공학이 아니라 사회적 접근이다.

송중운(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 여인천하

살림의 달인, 음식디미방의 저자

안동 장씨 장계항(1598~1680)

최근 전세계적으로 K-pop의 인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한류의 원조는 음악보다는 음식이었다. 김치와 불고기, 비빔밥으로 대표되는 한국음식은 뛰어난 발효음식의 발명이 없었다면, 아니 그 전통이 사라지더라도 됐다면 지금과 같은 한류 열풍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 어머니의 비법이 담긴 쪽지를 간직하고 있었듯,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안동 장씨가 남긴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 음식 맛을 아는 방법)’이다. 140여 가지의 음식 비법이 들어있는 조선시대 최초의 한글 요리서. 지금 그대로 요리를 해봐도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서술이 뛰어나며, 사라진 음식, 달랠 요리법 등 음식의 변천사와 17세기 한글 표기법까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책이다.

여기에 기록된 조리법은 장씨가 친경과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조리법과 경상북도 영양 안동 일대에 전해지는 것들, 본인이 나름 터득한 것들을 모은 것이다. 식재료 보관법과 면류, 어육류, 술담그기 등 분류를 체계화 시켜 146가지의 소개하고 있다.

한글 고어로 쓰인 이 책은 현대어로 이미 번역되었고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음식을 그대로 재현하여 책으로 간행하기도 했다. 술 담그는 방법이 51가지나 되는 것은 당시 조선 사대부 여인들에게 술 담그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려준다.

대가집 여인이 하는 집안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준비였다. 특히 종가일 경우 제사준비와 찾아오는 손님 접대를 위한 ‘봉제사 집민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경우에 장씨는 하루 한끼에 2백명을 접대할 정도였다고 하니, 살림의 수준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다. 모든 식재료를 손수 마련하고 손질해야했던 당시 사회에서 집안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어린시절 시서화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살림을 맡으면서 스스로 글을 접했다. 사실상 그녀에게 책을 불잡고 앉아있을 시간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살림의 여왕이라 불리는 마사 스투어트(70)는 요리, 집안장 등의 생활 노하우를 사업화시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300년전 살림의 달인이 있었다. 장씨에게 집안일은 ‘수양’의 하나였다.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접했고 스스로 군자가 되고 싶었던 그녀에게 그 길은 ‘살림’이었다. 어차피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거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이 안동 장씨가 당대에 ‘여중군자(女中君子)’로 칭송받은 이유이다. 진정한 성인군자는 삶속에서 선함을 베풀며 실천하는 것. 그녀가 아들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였다.

70대 말년이 되어서야 어느정도 시간여유 생겼을 즈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하나로 모아 음식디미방을 저술한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다르게 터득한 그녀의 탁월함은 여느 실학사상이 못지않았다. 마침내 주변의 존경과 환영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책을 남기게 된다.

오늘날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그녀가 살았던 마을을 ‘두들마을’이라는 민속마을로 조성하여 안동 장씨의 기념관과 음식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의 실천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성경 / 영을 낳은 후궁들, 저자

■ 서평-파워블로거의 지식충전, 감성충전

불안을 떨치고 행복을 꿈꿔라

『불안』 / 알랭 드 보통 / 이레



윤중현 필명 '꽃다지'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myplan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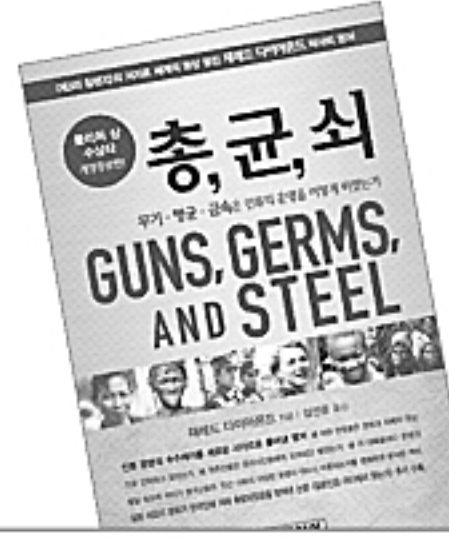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알랭 드 보통이 첫 번째로 강연회와 사인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필자도 초대받아 그의 강연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그의 대표작 <불안>에 대한 것이었다. 개인의 일상을 성찰하는 글을 쓰기 시작해 점차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알랭 드 보통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의 이야기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한다. 우울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개개인이 행복을 찾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불안>은 그의 이러한 관점을 대변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은 왜 ‘불안’을 느끼는가?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능력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명예와 지위, 부를 얻으려는 사회적 욕망에 사로잡힌다. 높은 수준의 기대와 삶의 불확실성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그렇다면 불안을 떨치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알랭 드 보통은 철학과 예술, 정치와 종교, 보헤미안적 특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누릴 줄 안다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낮은 기대와 관조적인 자세가 세계를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불안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강연에서의 내용을 덧붙인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집착과 욕망을 떨었을 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의 성공 또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상식에 기대지 않을 때 우리는 독창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남반구는 왜 북반구보다 가난할까?

『총, 균, 쇠』 / 제레드 다이아몬드 / 문학사상



박연주 필명 '침묵'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gotozoo3)

지구분을 바라보면 불현듯 ‘왜 신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가혹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전쟁과 기아는 그 곳에만 존재하는 듯하고 앞선 데 달린 격으로 자연재해마저 남반구에만 집중된다. 그곳은 진짜 신에게 버림받은 땅일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인류사적으로 접근한

다. 사실이 책이 지어진 진짜 계기는 1972년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뉴기니인에게 들은 질문이다. 한 뉴기니인이 그에게 “백인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이 곳으로 가지고 왔는데 왜 흑인은 그렇지 못했나요?”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책 한 권이다. 질문을 한 질문자가 질문만한 분량의 대답이 아닐 수 없다. 어찌되었건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이다. 무엇이 인류를 발전시켰고 무엇이 격차를 가져왔는지? 이에 대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답은 총, 균, 쇠가 지역적 차이를 가지고 왔으며 이를 모든 인류가 소유하지 못했던 것은 지역적 특성과 확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확

산이다. 지역적 확산, 정치적 확산이 문명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적 증거가 불가능하기에 많은 데이터와 통계를 수집해야 했다. 점을 생각해보면, 작품의 분포와 동물의 분포, 무기의 사용 등 전반적으로 발전을 추적해가는 그의 노력은 집요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그의 집요함이 탁월한 식견으로 도출되었으니 감사해야 할 일이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문명의 본질과 인류사의 발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지구분을 바라보자. 왜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가난한 걸까. 이 책을 읽은 후 장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까지 읽는다면 그대의 가슴이 보다 풍성해질 것이다.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2011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향상

상담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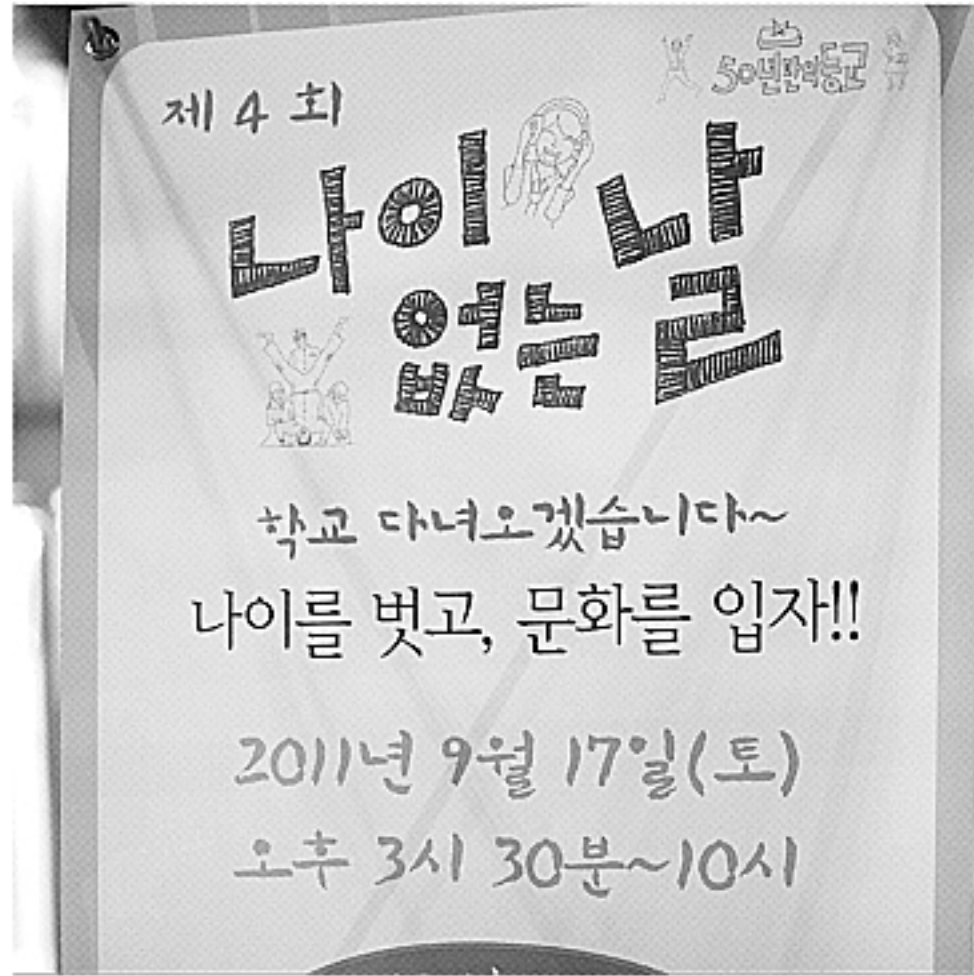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1년 9월 5일(월) ~ 2011년 12월 9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논문, 자기소개서 제외)
4.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5.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②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 (본인의 신청 확인은 MY PAGE)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 (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조용한 클럽? 사일런트 디스코!

놀이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까



지난 2일 저녁,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입구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약 300명의 인원이 무반주로 춤을 추고 있었던 것. 그 모습을 제외하면 무대 위에서 음악을 믹싱하는 DJ, 춤을 추는 사람들, 파티를 장식하는 풍선과 야광팔찌까지 등장한 모습은 어느 클럽과 다를 바가 없었다. 좀 더 가까이 다가 가보니 이들은 모두 무선 헤드폰을 하나씩 쓰고 있었다.

'사일런트 디스코(Silent Disco)', 조용한 클럽이라니 얼핏 듣기에 역설적이지만 사실이다. 사일런트 디스코에서는 음악을 무선 헤드폰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간간히 터지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빼면 외부 소음이 거의 없다.

사일런트 디스코는 후주의 'Big Day Out', 영국의 'Glastonbury' 등 해외 유명 축제에서 시작해 지난해 7월 문화행사 기획사 '상상공작'을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상상공작 류재현 대표는 사일런트 디스코를 "말 그대로 조용하게 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야외에서 바람을 쐬고 별빛도 보며 춤을 추

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이 파티의 큰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트랜스미터와 무선 헤드폰만 있다면 어떤 곳이라도 클럽이 될 수 있다. 야외 파티에서 항상 제기되었던 소음 민원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주택가에 서도 파티를 열 수 있다. 또한 주파수의 조절로 최대 3개까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할 수 있고 반경 100m까지 움직임이 자유롭다. 볼륨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다.

일반 클럽에서는 나이와 복장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입구에서 입장을 거부당한다. 하지만 사일런트 디스코에는 남녀노소의 제한이 없다. 지난달 17일에는 '나이 없는 날'이라 하여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컨셉의 파티가 기획되기도 했다.

이날 사일런트 디스코에는 50~60대의 어르신들이 교복을 입고 20대와 함께 댄스파티를 벌였다. 류재현 대표는 "나이가 많건 적건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추면 된다. 춤추는 데는 나이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일런트 디스코에서는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도 없다. 클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비부비'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원한다면 직접 술·담배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참가자 스스로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된다.

사일런트 디스코는 흥대 놀이터를 기점으로 회파자의 수요를 헤아려 부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일정은 카페(www.silentdisco.co.kr)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참가신청을 따로 받지 않는다. 신분증을 달고 무선 헤드폰 유지에 필요한 3,000원 이상의 금액을 내면 입장에 필요한 무선 헤드폰을 선착순으로 대여해준다. 현재 600~700명가량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여수세계박람회 참가를 위해 수용인원을 천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러한 사일런트 디스코를 더욱 '진하게' 즐기고 싶다면 스태프를 자원해 볼 것을 권한다. 스태프는 대개 자원자로 이루어지며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DJ, 헤드폰 교환·수령, 안전, 관리 등의 업

무를 맡게 된다. 류재현 대표는 "우리는 고용-피고용의 관계가 아니다. 인연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감내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새로 온 문화를 창조하는 주인공, 대외적으로는 문화 예술 단체에 합류하는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은정(22)씨는 "처음에는 음악도 없이 춤을 추는 모습이 이상해보였다. 지금은 답답한 클럽보다 야외에서 춤을 추는 게 더 좋다. 헤드폰을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 보는 옆 사람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사일런트 디스코가 열릴 때마다 참여하는 매니아가 생겨났다. 사람들이 헤드폰을 썼을 때 행복해지는 표정이 보기 좋다."며 "대학 축제에는 인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좀 더 대안적인 문화 창조에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지영 기자 guiyong@hansung.ac.kr



Diamond Records



외로움과 쓸쓸함에 대한 외침

<Tapestry(양탄자)>

70년대의 미국은 개인주의의 발달과 기존 가족 체계의 붕괴라는 사회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70년대를 자극과 퇴폐문화 발달의 시기로 해석하는 음반들이 등장했는데, 롤링 스톤즈(The Rolling Stones)의 <Sticky Fingers(뒤틀린 손바닥)>,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The Rise & Fall Of Ziggy Stardust(지그스타더스트의 흥망성쇠)> 등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하지만 아티스트들이 개인주의의 부산물을 자극과 퇴폐문화로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개인주의는 개개인이 가지는 자유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낳고 말았다. 70년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록의 강렬한 사운드나 디스코의 즐거움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음과 난잡함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주제로 하는 감성적인 음반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중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이 캐롤 킹(Carole King)의 <Tapestry(양탄자)>이다.

캐롤 킹은 조니 미첼(Joni Mitchell)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싱어 송라이터로 주목받는 여성 아티스트이다. 이 앨범을 만드는 당시 그녀는 한 번의 이혼 후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앨범의 주제인 '외로움과 고독'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녀 자신도 70년대의 고독과 외로움을 실재적으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음반이 외로움을 다룬 작품이라고 해서 주제 자체를 정면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음반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외로움을 다루었다'는 표현보다는 '외로운 사람들을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거의 모든 곡들에 깔려 있는 잔잔한 피아노와 힘 있지만 성량이 크지 않은 보컬 등은 슬픔을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극대화한다. 시끄러운 사운드를 배제하고 부드럽고 잔잔한 사운드를 중심으로 곡을 구성함으로써 친근감을 준다.

이런 '치유의 이미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곡은 'You've got a friend(당신에게 친구가 있어)'였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곡은 가사부터 외로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잔잔한 사운드와 보컬이 결합되면서 최고의 조화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 곡 'Tapestry(양탄자)', 아레사 프랭클린의 곡을 리메이크한 'Will you love me tomorrow?(당신은 내일 나를 사랑할 건가요?)'까지 대부분의 곡들이 이런 구조로 감성을 증폭시켜 평론가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런 캐롤 킹의 천재적인 판단력으로 앨범은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빌보드 앨범 차트를 15주간 점령했을 뿐 아니라, 앨범 판매량이 천만 장을 돌파하면서 여성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다이아몬드 레코드를 받는데 성공했다. 이는 70년대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플리트우드 맥(Fleetwood Mac)의 <Rumours(소문들)>와 비 지스(Bee Gees)의 <Saturday Night Fever(토요일 밤의 열기)>의 인기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음반을 통해 캐롤 킹은 자신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고, 사람들은 70년대의 변화가 남기고 간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음식傳

국물의 놀라운 포용력 '부대찌개'



남과 북의 분단과 갈등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이 땅에 수많은 죽음을 야기했다. 또한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기약 없는 가난에서도 삶을 이어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탄생한 음식이 우리가 분식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대찌개이다.

처음 부대찌개가 만들어진 장소는 의정부였다. 당시 미군부대가 있었던 의정부는 군에서 나오는 보급품을 구하기 쉬운 곳이었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육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전투 식량과 구호품으로 쓰였던 소시지와 햄을 김치와 함께 끓여 먹으면서 부대찌개가 탄생한 것이다. 이 음식의 이름이 '군대의 음식'이라는 뜻을 가진 '부대찌개'가 된 이유는 군수품을 이용한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대찌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의 이름을 따서 '존슨탕'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소시지와 햄이 들어가는 이 음식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부대찌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음식일 뿐 아니라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재료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의 음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앞서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우리나라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대찌개가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데는 부대찌개에 가미된 은은한 단맛이 한국인에게 맞았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 단맛의 근원은 소시지와 햄 등의 가공 식품에 쓰이는 설탕이었다. 군에서 사용하는 식품들은 맛 뿐 아니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해 소금과 설탕을 많이 사용했다. 부대찌개 조리시 따로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재료의 단맛이 우리나라 정서에 맞았다는 점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부대찌개에 국물 음식이라는 점이었다. 우리

나라는 국을 주요 부식으로 하는 식습관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왔다. 밥을 국에 말아먹는 것을 '땀반'이라 하여 고급음식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음식 문화이며, 그만큼 국이 우리나라 음식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국을 끓이게 되면 본래 재료가 가진 맛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이 국물에 담기게 된다. 이 때 재료의 양과 종류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국안에 고기나 야채 같은 재료 외에 장이나 조미료를 첨가해 국물 맛을 바꿀 수도 있다. 부대찌개 역시 고추장과 김치로 주된 맛을 냈기 때문에 햄이나 소시지 같은 다른 나라에서 가공한 재료들을 넣어도 충분히 한국적인 맛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부대찌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국물의 놀라운 포용력 때문일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사진이야기



시력을 잃어가는 기수와 절름발이 경주마의 이야기, '첼프'. 영화 속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당신도 그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뒤쳐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대는 아무런 주입이다.

옹혜민(한국어문 4)



우리는 포이동 공동체입니다

- ① 포이동과 타워팰리스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 ② 송희수 할머니가 가톨릭대 N/F학생들에게 마을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마을사람들과 시민단체가 만든 한수역과 벽화
- ④ 강제로 철거된 주거지
- ⑤ 철거민운동본부의 모습. 아이들이 머물고 있다.
- ⑥ 마을사람들은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름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방화이라고 여기 와서 지붕을 다 올려주고 허부 복고 가기도 하고 그렇지.”
 할머니는 마을을 전부 돌고 난 뒤에도 마을에 와준 학생들에게 신중해서 고민다는 말과 학생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청은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포이동 지역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인근에 있는 서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놓은 주거지 중 일부를 자진 철거한 상황이다.

포이동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주택들은 아직 도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이고, 보일러 같은 난방도 설치해 단장 다기를 겨울을 어떻게 넘기까 마을 사람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이다. 또 겨울에 입어야 할 옷이나 생활용품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을 놓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이다.

백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가운뎃에는 화관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민을 만나 취재요청을 할 수 있었다.

취재를 위해 이야기를 건네자 주민 한 분이 점심부터 먹으려다 식판을 건넵주었다.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요리를 할 만한 부엌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포이동에 도착한 당시에 젊은 남성들은 집을 짓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들은 한 곳에 모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재료나 기본적인 생활용품 역시 한 곳에 모아두고 같이 쓰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포이동주거민공동체위원회 부위원장 송희수 할머니에게 마을의 자세한 내막과 최근에 있었던 강남구청과의 마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금 현재는 관에서 허가를 해주든 안 해주든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강남구청에서 용역을 보내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 용역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버티는 주민들까지 끌어내려서 때리고 그랬어. 최근에는 용역이 경찰 허탈도 없이 오니까 언제 울지 몰라서 마을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지.”

이미 마을에는 용역들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었다. 송희수 할머니 역시 용역들에게 전혀 부과 견디며를 다친 상황이었다.

“지금 마을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임대주택으로 갈 수가 없어. 여기서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임대주택으로 가서 팔팔이 흘러 지만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지. 천만 가치고는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송희수 할머니는 마을을 방문한 기쁨부터 N/F동아리 학생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화장실,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공부방 등 마을의 곳곳을 안내해 주고, 공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그때도 시민단체나 학생들이 자원봉사도 오고 애들도 보살펴줘서 마을이 많이 나아졌어. 애들 공부방도 짓고 지붕도 전부 올려줘서 입니까. 고마운지 몰라. 지금 마을에 애들이 16명인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애들 걱정안하고 집짓는 데 전념할 수 있어. 게다가

강남구 포이동 재건마을은 정부와 강남구청이 서울에 있던 월거민들과 상이용사들을 강제 이주시켜 만든 마을이다. 이주민 당시 이들에게는 단 한 명의 방도 없었으며, 같은 서울시민 입에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고, 그 결과 2009년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지난 6월 12일 마을에 지독한 화재가 일어났다. 집들이 모두 다닥다닥 붙어있었던 탓에 마을 967구 중 757구가 전소되고 말았다. 이후 태도가 불편한 강남구청은 주민들에게 반지하 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가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강요하고, 주거 복구를 허가하지 않았다. 심지어 용역들을 고용해 강제로 입시수수를 할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견뎌 들고 포이동의 상황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일 서울시 개포동 1266번지를 방문했다.

마을에 도착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의 모습과 신적뿔 쌓여있는 쓰레기들, 그리고 집집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이었다. 곳곳에서 새로 집을 짓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집을

